

거주 모델을 위한 궁리와 합의의 공간

〈동지틀기 : 쪽방 프로젝트, 하차연 개인전〉

Contemporary Art Journal, 2013 vol.15

현지연 / 컨템포러리 아트저널

동지 틀기, 현재의 이곳에

하차연은 30년간 한국이라는 모국의 밖에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의 주 근거지였고, 처음 유학을 떠났던 프랑스가 그의 현재의 베이스캠프가 된 상태이다. 그런 그녀에게 서울은 지리적으로 낯선 곳이다. 그녀가 떠나던 30년 전, 혹은 간간이 머물던 서울은 모국이지만 낯선 풍경이다. 그리고 그녀의 서울전시 〈동지틀기전〉은 그 낯선 서울의 풍경 한 조각에 대한 말하기이다. 우연히 머물게 된 동네에서 발견한 쪽방촌에 관한 이 작업은 쪽방촌이라는 주거의 형태를 통해 그녀가 줄곧 관심을 갖고있던 주거권과 거주 의 형식, 그리고 그것에서 배제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다. 그녀의 앞선 작업 〈스위트홈 Sweet Home〉 시리즈에서도 작가는 파리의 노숙인 문제를 통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문제의식이지만 서울에서의 전시를 위해 그녀는 새로운 작업을 준비했다. 문제는 “이미지가 너무 이국적이라는 것”이다.

“〈스위트홈〉 시리즈는 내가 산책하고, 살던 곳 주변에서 걸으면서 직접 얻게 된 작업이에요. 독자들이 내 현실, 내가 걸어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고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파리에서 만들어진 〈스위트홈〉 시리즈는 이국적인 이미지가 서울에서 보여질 때 그런 현실성을 덮어 버릴 수가 있죠. 전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작가는 일종의 ‘의무감’을 가지고 이곳, 서울의 이미지로 관객들과 만나길 원했고, 그 결과 전시장에는 그녀가 영등포에서 보았던 쪽방촌이 재현되었다. 종이박스로 만들어진 잠자리, 스티로폼 의자, 말라 비틀어진 화분들과 낡은 냉장고. 쪽방촌 주변을 돌아다니며 찍은 영상에는 버려진 물건들을 쌓고 이동시키는 작가가 나타나고, 마치 쪽방의 거주 조건들에 대한 메타포처럼 보이는 고단하고 힘겨운 반복적 행동들이 계속된다. 쪽방이라는 주거형태는 거주 조건으로 보았을 때 매우 비인간적인 주거형태이다. 비좁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조건들. 그러나 하차연이 쪽방촌을 작업의 주제로 삼은 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좁은 전시장은

A space for contemplation and agreement on residential models

– Nestling: Jjockbang Project – Ha Cha Youn Solo Exhibition

Contemporary Art Journal, 2013, vol.15

By Hyun Ji-yeon, Senior Editor of Contemporary Art Journal

Nestling, here and now

Ha Cha Youn has been out of her homeland of Korea for 30 years. Germany and France served as her bases, and France where she started studying abroad is currently a basecamp of her work and life. Seoul is a place geographically unfamiliar to the artist. She is from Korea, but it is strange to her because she left it 30 years ago and rarely returns. Her Seoul exhibition *Nestling* is her narration on pieces of Seoul's landscape she feels are so unfamiliar. This work addressing *jjockbang* (a small room or a small house that has been divided into smaller spaces to accommodate just one person), the artist found by chance in the village where she resided, comments on the right of residence, the mode of residence, and those alienated from this right through a type of residence, *jjockbang*.

She has consistently been interested in this issue and addressed this in her previous series *Sweet Home*, focusing on the problem of homeless people in Paris. The problem is, however, “The images of her previous series are exotic ” for the Seoul exhibition. Anchored to the same critical awareness, Ha arranged new work in Seoul.

“The *Sweet Home* series was a result of my hands-on experience of the place and surroundings where I walked and lived. I have to make viewers imagine and expand the scope of their thinking when they see my reality and the things I found. But, this series may conceal this reality when exhibited in Seoul. I thought this series could be exhibited in Seoul, but not this time.”

서울에 존재하는 하나의 주거형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그곳에 앉아보고, 움직여 보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할 것을 기대한다.

“쪽방에 기거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최악의 상황이거나, 주거에 돈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주 외국인들이거나... 이분들이 거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현상이나 상황 면에서 파리 거리의 노숙인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9m² 이하 면적을 가진 공간의 집을 세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비인간적인 크기라는거죠. 9m²이면 그래도 꽤 넓은 면적인데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수 밖에 없죠. 인간적 조건을 위한 비인간적인 법이 되는 거죠. 프랑스인들이 쪽방을 솔루션으로 볼지, 아니면 비인간적 조건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간 정도로 보는 입장인데,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쪽방이 개선이 되긴 해야되죠. 문제로 밀쳐만 놓으면 곤란하죠. (전시)에 가담하는 사람들마다 쪽방에 대한 새로운 사고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살게 되면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정도까지 기대를 해요. 그렇게 하면 이 공간은 인간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감옥의 방처럼 될수도 있으니... 관객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살 방법을 간구 해야겠죠.”

공동의 문제를 위한 해결공간을 구성하는

작가는 언제나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한다. <스위트홈>의 첫 번째 작업에서 보여주었던 일종의 주거키트는 이런 작가의 생각이 발현된 것이다. <스위트홈> 시리즈 네편은 작가의 사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작업에서 그녀는 파리의 전철역 벤치에 노숙자들이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스티로폼을 설치했다. 작가는 직접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작은 해결법을 실험한다. <스위트홈2>는 파리의 작은 하천 옆의 보따리들을 보여준다. 노숙자들은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보따리들을 끼어 놓고 밤이면 돌아와 자신의 집을 찾고 잠자리를 만든다. 작가는 <스위트홈2>에서만 해도 산책로에서 발견한 파리의 낫설지만 실재하는 풍경을 통해 시적인 감각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단지 이색적 풍경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를 상기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의 풍경은 낫설고 시적이지만 그의 카메라는 세심하고 날카롭다. 노숙자들은 보이는 곳에서는 “청소”되지만 그들은 더 후미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둥지를

Feeling a sense of obligation, the artist wanted to show her viewers images of Seoul, especially the *jjockbang* of Yeongdeungpo, Seoul. The artist herself appears in a video featuring a bed made of paper boxes, a Styrofoam chair, pots of withered flowers, a battered refrigerator, and other things she videotaped around a *jjockbang* village. Her strenuous, repetitive actions are like a metaphor for the conditions of *jjockbang*. *Jjockbang* are a very inhumane impoverished type of residence. They are cramped, inconvenient, unsanitary, and dangerous dwellings. However, what inspired her work was not so much a pessimistic perspective of *jjockbang*. What she expects is for viewers to sit, move there, and consider how to live there.

“*Jjockbang* dwellers are mostly those in the worst economic conditions or migrant workers who have to spend the least expense on their residence. These people are not homeless but are almost the same as homeless people in Paris. In France renting a room less than 9 m² wide is prohibited by law. This means such a room is inhuman size. An area of 9 m² is considered pretty spacious, but many become homeless due to the law. The law becomes inhuman for a humanistic reason. I wonder whether French people see *jjockbang* as a solution or an inhuman condition. Personally, I am in the middle. I see *jjockbang* as a solution but they should be improved. The problem needs a solution, which may cause trouble if delayed. Those joining the exhibition are required to think about *jjockbang*. I think this is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I expect that the viewers will pose questions such as ‘Can I live here?’ and ‘How can I decorate this?’ If so, this can be a humanistic space. If not, this may become a prison cell. This space may change in accordance with how viewers contemplate this. We have to earnestly explore how to live.”

Forming a solution space for common problems

Ha Cha Youn has always tried to share her anxiety about solutions. A residence-kit in the first work Sweet Home is a manifestation of this idea.

틀게 되는데, 작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스위트홈 3>에서 작가는 개인적인 해결책과 시적이고 이국적인 시선에 머무는 것에서 급격하게 이탈한다. 2006 - 2007년 겨울 파리에서 있었던 노숙자들의 시위를 촬영한 이 작업을 통해 시선은 더욱 정치적으로 확장된다. 그녀는 시위의 내부에서 정치적 행동의 절박함과 동시에 거대한 정치세력의 힘(*1)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폭력에 대한 감각은 <스위트홈 4>의 작업으로 드러났다. <스위트홈>시리즈는 자연 발생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했으나 공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문제로 전개된다.

“외국인 체류자로서 하루아침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프랑스에서 별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언제 쫓겨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여차하면, 내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죠. 작업을 할 때는 언제나 닥칠 수 있는 내 문제라고 하는 느낌이 컸었어요.”

작가는 노숙자들의 문제가 결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외국인 체류자인 자신의 문제라는 긴장감을 갖고있으며, 동시에 파리의 노숙자 문제는 작가가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투사한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고있다. 프랑스에서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주거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민과 불법체류자, 식민의 경험과 그것의 이해, 그리고 국가 경제와 정치의 문제가 모두 뒤얽힌 것이다. 이는 작가이든 노숙자든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며 공동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 “그 일반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적대적 세력들의 마주침과 적대의 정식화 및 해결공간을 설립하고 인류를 구성하는 상이한 요소들의 “공통존재”를 설립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재생산, 이런 교류, 이런 역사의 조건 자체”(*2)라면 하차연의 작업은 공통의 존재감과 해결공간을 위한 교류와 재생산의 조건들을 제안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주의 문제들이 세계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죠. 지리적, 물질적인 이주 안에서 유럽과 우리 상황은 많이 다르죠. 유럽에서 이전의 식민지 국민들을 오늘날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문제를 봤을 때는 윤리적인 책임감을 회피하는 모순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연대는 어렵지 않나, 진정한 세계 공동체는 상상적인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The four pieces of this series showcase the stream of Ha's thought and its changes. In the first work, Ha sets in Styrofoam a Parisian homeless person who used to lie on a bench in a subway station. The artist offers a minor solution necessary for the homeless while using the Styrofoam. *Sweet Home 2* features bundles placed by a stream in Paris. Homeless people had kept their bundles between tree branches and made up their bed with things from the bundles at night. In this work the artist intended to arouse a poetic sense through unfamiliar yet real Paris scenes she discovered on a walking path. However, she was not a mere observer of unusual scenes but made constant efforts to elicit “consent” for problem solution.

Her scene appears unfamiliar and poetic, but her camera work is scrupulous and keen. The homeless are swept from visible places, and nestle in obscure, inconspicuous places. The artist captures this aspect. In *Sweet Home 3* the artist was distant from presenting any individual solution or seeing subject matter from a poetic, exotic perspective. Through this work of photographs of protests by the homeless in Paris during the winter between 2006 and 2007, the scope of her work extended politically. She felt the urgency of political behavior and the power of enormous political force (*1) in the homeless protests. This sense of violence is also revealed in *Sweet Home 4*. Triggered by her spontaneous, individual concern, the *Sweet Home* series involves political issues and public arenas.

“As an alien I might be disadvantaged by a change in policy in a day. When I cannot be appreciated as a useful person here, I might be ousted any time. Even if I am not a homeless person, the problem of the homeless may be my problem. Whenever doing work, I strongly feel this might be my own problem.”

The artist feels tension - that the homeless problem might be her own problem, not others, and realizes the problem of the homeless in Paris has an import more than her own psychological projection, at the same time. The issue of the homeless in France is not merely a

“다른 곳에서 왔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여기 출신인”

프랑스와 같은 서구의 국가들에 이주한 이민자들의 많은 수가 과거식민지 영토의 주민임을 고려한다면 이주의 문제는 더욱 첨예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민자들은 “다른 곳에서” 왔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여기 출신인” 아주 독특한 “이방인들”(*3)이며 그들은 배제되면서 포함되는 이중의 시민이다. 따라서 서구는 분명 식민지에 대한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짐을 지고 있는 동시에 이민자들을 어떤 국민으로 포함하거나 배제해야 하는 숙제를 앞에 놓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구인들의 세계화는 (이민자들로 대표되는) 타자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민 온 예술가들이 많죠. 그들의 주제는 식민지, 근대화,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하고요. 그들에게서도 유럽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영향들이 보여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전시되는 외국인 작가들의 작업은 서구화되거나, 혹은 이미 오래 서구에 살던 사람들이지 본국에서 성년이 되어서 온 작가들이 아주 많은 수는 아니에요.”

이민을 재식민화하는 서구 세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작가들은 이미 많은 수가 서구의 미학적 패러다임들에 익숙한 언어들을 습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구의 입장에서 동질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수용에 있어 문화적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에게도 프랑스인으로 통합되길 바라는 신념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5-6년 전부터는 이민자 2-3세 작가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들이 많아졌어요. 예술의 본질적 문제 이전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니 예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내작가들을 외국에 소개할 때도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적 미학적 경향이나 이론에 맞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들이 문화적 트러블을 만들지는 않지요. 그런데 또 한국적인 특성들이 과잉되면 오히려 더 안 읽히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해하기보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작가들뿐만 아니라 미술계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야 할 문제죠.”

problem of residence but an entanglement of the problems of immigration, being an illegal alien, France’s experience of colonization, national economy and politics. This is a problem of society and nation, and a common issue beyond an individual’s problem, be it the subject of the problem of an artist or an individual. If the politics “is a confrontation with adversaries, formulation of adversaries, establishment of solution space and ‘common being’ for different elements, and condition of such reproduction, such exchange, and such history (*2)” Ha’s work can be seen as a political act to propose exchange for common being and solution space and conditions for reproduction.

“The issue of immigration may present a typical keyword in globalization. Our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Europe in terms of the geographical, material conditions of immigration. When the European continent regards people from its colony as illegal aliens, I feel the contradiction it avoids is an ethical responsibility. I think it is difficult to attain any solidarity in life and a true global community is simply imaginary.”

Came from some other place but and also came completely from here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immigrants to Western countries like France are residents of their previous colonies, the problem of immigration may raise a keener issue. These immigrants are unique “strangers” (*3) who came from “other place” and also “came completely from here”. They are disparate citizens excluded by and inclusive simultaneously in the mainstream. Western countries are saddled with debts they have to settle as colonizers, and have the assignment to include and exclude such immigrants. And in this process globalization in Western nations seems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ir attitude to embrace other culture (represented by immigrants).

서구의 언어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문제가 되듯, 다른 언어를 지역화시키는 것에서도 물이해가 따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서구의 미학적 패러다임을 잘 알고 있는 타자의 언어는 서구의 지배적인 다수 언어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다수 언어에 잡음을 만들어내는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곳에서 왔으면서도 완전히 여기 출신”의 언어를 지니고 있는 이들은 다수의 언어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주역이다. 이민자 작가들의 이중적 혹은 다중적 정체성은 이민 국가의 통합적 문화를 분열시키고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생성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른 곳에서 온 언어와 여기의 언어

하차연 작가는 스스로 유럽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른 곳에서 왔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여기 출신”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의 내부에서는 각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각기 다른 문화를 표현하는 언어를 창출하는 것이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며 충돌한다. <동지 틀기>는 그의 모국어인 다수의 언어인 이곳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오는 언어인 셈이다. <동지 틀기>와 <스위트홈>은 모두 각 도시의 편린들이다. 각 도시는 서울이고 파리이지만 이미지는 도시의 대표적 풍경을 재현하지 않는다. 마이크로 장소성을 갖는 이 공간은 각 대도시를 낮설게 만듦으로써 서울을, 파리를 재생산하고, 작가는 그 모호한 언어로 그녀와 그녀의 이웃의 새로운 거주가능성을 탐색한다. 그것은 ‘화합’이고 작은 연대이고, 새로운 ‘공통 존재’의 생성을 위한 탐색이 될 것이다.

“개인주의는 인간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공동체적인게 인간을 더 포용할 수 있고 가혹하지 않지요. 극단적인 산업화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했죠. 그 문제점에 떨어졌을 때 저는 끊임없이 화합하려고 노력해요.”

(*1) 2006-2007년 파리의 노숙자 투쟁은 유례없이 많은 참여자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미디어의 많은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시위대 내부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는 미디어에 나타나지 못했고, “주거의 권리를 ‘우리 대중의 문제’로 전이시키는 가운데 갑자기 사라진 것 역시 바로 노숙자들이다. 당시 내무장관 사르코지는 ‘대항력 있는’ 주거권은 노동자와 퇴직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징후적으로 보여줬다.” (양창렬, <돈키호테의 아이들: 소수적인 정치를 위하여> 『소수성의 정치학』, 부커진 n.1, 2007, p.295

(*2) 에티엔 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진태원 역, 후마니타스, 2010, p.234

(*3) lbd., p.115

“There are many migrant artists who address diverse themes such as colonization, modernization, and cultural difference. Their work seems influenced by the region where they reside in Europe. Alien artists’ works exhibited in France appear already Westernized. They have long lived in the West, and only a few artists came to the West after coming of age.”

A number of artists not excluded by the Western world that adopts immigration as a means for recolonization have already acquired idioms familiar to Western aesthetic paradigms. As the idioms have been assimilated into Western elements, they do not cause any cultural trouble.

“French people have for a long time had confidence in foreigners being integrated into French. About five or six years ago, fortunately,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 migrant artists presented more exhibitions showcasing their own culture. If this atmosphere is formed before discussing the elemental issue of art, it could be socially influential. That is, art assumes this role.”

“When introducing Korean artists to a foreign country, we tend to select artists whose idioms fit Western aesthetic tendencies and theories to which we feel familiar. Their idioms make no cultural trouble. If a work of art is in a plethora of Korean hallmarks, many rather often overlook and ignore it. This work is not understood but just disregarded without drawing attention. This is the problem we all have to consider seriously.”

As our conformist attitude toward Western language is problematic, lack of understanding often entails in regionalizing the other’s language. This intimates to us lots of things. What we cannot overlook is the fact that some who are well aware of Western aesthetic paradigms use the dominant language of the majority of the West but others use languages turning down such dominance. Those who came



(a) *Nestling*, Ha Cha-young solo exhibition, 2013
 (b) *Nestling*, Ha Cha-young solo exhibition
 (c) *Sweet Home 2*, Photograph, 2005-2006
 (d) *Sweet Home 4*, Performance, installation, photograph, video, 2008



(a) *Sweet Home 2*, Photograph, 2005-2006
 (b) *Sweet Home 2*, Photograph, 2005-2006
 (c) *Jjockbang* Project, Model, 2013

from ‘some other places’ but use the language here completely are the leading roles who make this language more intricate. Such immigrant artists’ twofold or multiple identities envision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new culture by splitting the nation’s integrated culture and revealing the culture’s diverse aspects.

Language came from another place and the language here

Artist Ha Cha Youn feels she came from another place and came from here completely both in Europe and Korea. That is why desires to understand another culture and create her own language have consistently collided in her inner world. *Nestling* and *Sweet Home* are all fragments from each city, Seoul and Paris. Their typical urban images are not represented in these series. The spaces in the series reproduce Seoul and Paris by making each metropolis look unfamiliar. In the series the artist seeks “harmony”, “solidarity”, and “creation of new communal being”.

“Individualism is not an elemental solution for humanity. Something communal antithetic to something individual may embrace humans and not be harsh. We have lost this due to extreme industrialization. When I face this problem, I make constant efforts to be in concord with others.”

(*1) The struggles of the homeless in Paris between 2006 and 2007 drew much media attention with many participants and an organized movement. However, the concrete situation of and request made by the protesters was not covered by the media. It was the homeless that disappeared all of a sudden in a midst of converting “the rights of residence into a problem of the general public”. Nicolas Sarkozy, then Interior Minister, showed this, stating that workers and retirees have “countervailing” priority rights of residence. Yang Chang-yeol, (*Enfants de Don Quichotte*). *The Politics of Minority*, Greenbee, 2007, p.295.

(*2) Étienne Balibar, *We, the People of Europe*, Trans. by Jin Tae-won, Humanitas, 2010, p.234.

(*3) Étienne Balibar, *Ibid.*, p.115.